

**○ 외환리포트**

<b>전일동향</b>	외국인 배당역송금과 고점 네고물량이 맞물려 보합
-------------	----------------------------

- 전일 달러-원 환율은 외국인 배당 역송금과 고점 네고물량이 맞물려 전일 증가와 보합으로 마쳤다.
- 이날 현대차가 당초 예상했던 15일보다 1거래일 일찍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포스코, KT, LG화학 등의 배당금과 합쳐져 역송금 수요가 강하게 나타났다. 외국인 주식 역송금 수요와 저점 결제수요가 유입돼 달러화는 고점을 높였으나 수출업체 네고물량이 1,130원대 초반에서 들어오면서 롱스탑도 유입돼 상승폭을 줄였다. 이에 이날 달러화는 전일 증가와 보합인 1,129.1원에 거래를 마쳤다.
- 코스피는 1분기 기업실적에 대한 우려와 불신이 시장에 확산되며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매도 압박이 거세 25.57포인트 하락한 1,924.23에 마감했다.

전일 달러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1129.00	1133.30	1128.10	1129.10	1131.10

전일 엔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132.74	1150.83	1130.60	1147.80

<b>금일 전망</b>	北 태양절과 삼성전자의 배당금으로 1,130원대 초반 등락예상
--------------	------------------------------------

- 금일 달러-원 환율은 북한의 태양절에 따른 리스크 부담과 삼성전자의 배당금의 외국인 역송금 수요 유입으로 1,130원대 초반에서 등락이 예상된다.
- 금일 북한이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을 지내는 만큼 북한 리스크에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우리 정부의 대화제의를 거부한 만큼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오늘로 예정된 삼성전자의 외국인 배당금 역송금 수요에 의해 달러화 하단이 탄탄한 수급에 막힐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날 북한과의 대화 난항에 따른 부담과 삼성전자의 외국인 배당금 지급 등으로 달러화는 1,130원대 초반에서 등락을 보이며 레벨상승을 노릴 가능성이 있겠다.
- 뉴욕증시는 美 소매판매 및 소비자신뢰지수 등 경제지표 부진, 키프로스의 구제금융 추가지원 요청 등으로 하락했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126.00 ~ 1136.00 원
------------------	---------------------

<b>체크포인트</b>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418.17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2.75원상승(재송)
	■ 美 다우지수 : 14865.06, -0.08p(0%)
	■ 전일 환율(단위: 원/100달러)

■ 전일 현물환 거래량(송합) : 98.33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2820 억원

##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